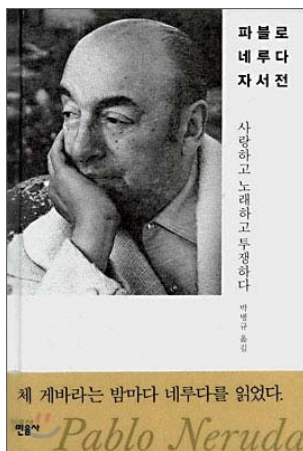




■ 파블로 네루다 자서전 : 사랑하고 노래하고 투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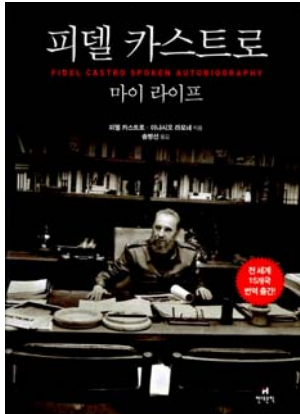


원제: Confieso que he vivido
 파블로 네루다 (지은이), 박병규 (옮긴이)
 출판사: 민음사
 출간일: 2008년 3월 5일
 페이지수: 537쪽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칠레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Pablo Neruda)가 유년기부터 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의 삶을 기술한 회고록이다. 낭만적인 연애 시인에서 위대한 민중 시인으로 거듭나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삶과 창작과 비평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 놓고 있어서, 파블로 네루다 애독자에게는 필독서로 꼽힌다.

“최초의 탄환이 스페인 기타를 관통하고 거기서 음악 대신 피가 솟구쳐 나오자 내 시는 인간의 절망이 널브러진 길 한가운데서 유명처럼 서성거렸고, 시에서는 무수한 뿌리가 생겨나고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 그때부터 내 길은 다른 사람들의 길과 합류하게 되었다. 그리고 문득 고독이라는 남쪽에서 민중이라는 북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나 자신을 보게 되었다. 내 보잘것없는 시는 민중에게 칼이 되고 손수건이 되어, 무거운 고통으로 흘린 땀을 닦아 주고 빵을 위한 투쟁의 무기가 되기를 열망했다.”

■ 피델 카스트로 : 마이 라이프



원제: Fidel Castro, Biografía a dos voces

피델 카스트로, 이냐시오 라모네 (지은이), 송병선 (옮긴이)

출판사: 현대문학

출간일: 2008년 4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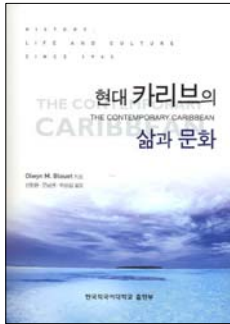
페이지수: 714쪽

2008년 2월 집권 49년 만에 국가평의회 의장직에서 사임한 피델 카스트로의 자전적 회고록. 그동안 국내에는 카스트로 전기, 평전, 연설문 등이 출판되었다. 그러나 이 책은 피델 카스트로와 이냐시오 라모네가 3년 동안 100시간이 넘는 밀착 인터뷰를 통해 완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대답자 라모네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 맞서는 ‘세계사회포럼’의 주창자이자 ‘더 나은 세상은 가능하다’는 유명한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낸 진보적 지성인이기도 하다. 카스트로의 말솜씨는 거칠 것 없이 유장하게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라모네 또한 문장에 일가견이 있는 저널리스트이다. 이런 두 사람의 목소리가 공명하고 있는 이 책은 혁명 전선에 뛰어든 카스트로의 모습을 어떤 전기나 평전보다 생동감 있게 전달해준다.

“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배고픔으로 내모는 체제입니다. 속임수와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이고, 이기주의의 씨를 뿌리는 것이며, 소비주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 우리는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바라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만 있다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겁니다.”

■ 현대 카리브의 삶과 문화



원제: The Contemporary Caribbean: History, Life and Culture since 1945

Olwyn M. Blouet (지은이) 문남권 · 신정환 · 하상섭(옮긴이)

출판사: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출간일: 2008년 3월 10일

페이지수: 208쪽

이 책은 서로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카리브 해 국가들을 소개한 입문서이다. 저자는 카리브 해의 현대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복잡다단한 근대사를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초심자라도 이 지역의 삶과 문화의 역동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고래여인의 속삭임



원제: El susurro de la mujer ballena

알론소 꾸에토 (지은이), 정창 (옮긴이)

출판사: 들녘

출간일: 2008년 3월 3일

페이지수: 376쪽

페루 작가 알론소 꾸에토가 2007년에 발표한 소설로, 25년만에 만난 동창생의 이야기를 밀도 있게 다루고 있다. 이야기는 40대 초반의 유력 일간지의 국제부 부장 베로니카가 콜롬비아에서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엄청나게 비대한 여자를 만나면서 시작되는데…….